‘전주독서대전’ 축제 현장으로 모여라

전주시, 30일~10월 2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서 전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출판문화축제인 ‘2022 전주독서대전’이 현장 중심의 풍성한 축제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 일원에서 ‘2022 전주독서대전’을 전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5회째를 맞이한 올해 독서대전은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을 주제로 열린다. 시는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됐던 참여자를 축제 현장으로 집중시켜 축제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독서대전은 일반시민과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등 100여 개의 전주시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기존보다 확대된 110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창비·보리출판사 등 국내 대형 출판사부터 신아출판사 등 지역 출판사는 물론이고 지역 독립서점까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맘껏 책을 구입하는 북마켓과 풍성한 독서체험부스도 3년 만에 재개된다.

행사 첫날인 30일 한벽문화관에서는 ‘2022 전주 올해의 책’ 성인부문 선정도서인 희곡 ‘달릉개’(최기우 작가) 연극공연으로 2022 전주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린다.

‘2022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전주독서대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작가와 책으로 여행하는 다채로운 초청강연 △시민이 만드는 참여형 토론·전시 △전 세대추억의 시간여행 △어린이 중심의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작가-책으로 여행하다’ 초청강연의 경우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 장동선 뇌과학자, 여행과 시와 음악이 있는 김하나·황선우 작가, 김이듬 시인 등이 참여한다. 전주 올해의 책 저자인 이순미 작가와 유은실 작가, 최기우 작가의 강연, 지난해 혼불문학상 수상자인 허태연 작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전주를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에는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와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각각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와 ‘우리 고장의 한옥건축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전주를 사랑한 작가’ 코너에서는 김영 전북문인협회 회장과 김현조 전북시인협회 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여기에 소중애 작가를 비롯한 13명의 출판사 초청작가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책의 도시 전주를 탄생시킨 ‘완판본과 떠나는 전주 서포여행’ 기획전시 △시민공모전 수상작 ‘책여행 독서사진’ △여행 북큐레이션 △한국잡지협회에서 준비한 고잡지 영인본과 신간잡지 500여 종 △전주 지역작가들의 출간물인 ‘전주책이 피었습니다’ △시민 작가들의 출판물인 ‘전주는 모두 작가’ △디지털북 체험전시 △365일 생일서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시회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2030 청년 책 포럼’을 비롯한 학술토론분야 프로그램 △‘길거리 책 운동회’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추억여행 프로그램 △‘독서골든벨’ 등 어린이 중심의 가족형 프로그램 △전주독서대전 SNS 이벤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2022 전주독서대전 행사 일정 확인 및 프로그램 사전 접수는 전주독서대전 공식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56)로 문의하면 된다.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해오다가 올해 들어 많은 분께서 기다리던 대면 행사로 전환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이 가을의 들녘처럼 풍요로운 책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완벽한 축제성 회복과 힐링하는 독서대전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연휴기간 청소상황실 · 기동처리반 운영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전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청소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까지 △청소상황실 운영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일 조정 및 분리배출 홍보 △일제대청소의 날 운영 등 쾌적한 전주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1일부터 오는 8일까지를 ‘추석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각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일반시민이 모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일제 대청소를 통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활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되는 청소 민원 해결을 위해 청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관리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공백 없는 청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영화의 거리, 터미널 등 10개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휴무 없는 가로청소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10일 이틀간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및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 등을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추석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최소화와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공공데이터 분석 공모전 접수

주정차 관련 정보와 병원·약국의 위치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2022년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전주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결과와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전주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주정차문제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 등 2개 분야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전주시 현안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데이터 포털(data.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참가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전자우편(mrmini1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주제의 창의성과 데이터 적합성, 파급성, 발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장려상 2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주시 데이터 포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36)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아동주도형 놀이축제 ‘삐뚤빼뚤 놀이터’ 3일 진행

전주남초등학교에서 오는 3일, 놀이축제 ‘삐뚤빼뚤 놀이터’가 펼쳐진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 전주남초등학교(교장 강인순), 전주성심여자중학교(교장 성정세), 단비지역아동센터(센터장 서정혜), 완산골지역아동센터(센터장 주순옥), 흑석나눔지역아동센터(센터장 류은방울)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팝업놀이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 6개 기관에서는 전주지역 내 놀이공간 부족과 놀이터 노후화 등으로 침해받는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해 놀이 축제를 기획했다. 특별히 금번 놀이 축제는 기획 단계에서 워크샵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 진행도 아동이 주도하는 이른바 ‘아동주도형 놀이축제’이다.

삐뚤빼뚤 놀이터는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팝업놀이터의 형태로 지역사회 아동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부스로 구성된다.

삐뚤빼뚤 놀이터는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뽑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다채로운 평생학습 강좌 누려요”

전주시, 20개 기관 25개 평생학습 플랫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가을철을 맞아 청소년기관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역 청소년기관과 노인복지관, 공유공간 등 20개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 플랫폼 시즌3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9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우쿨렐레 △중국어 △문인화 △홈베이킹 △캘리그라피 △에니어그램 등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실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역사기행 등 다양하다.

지난 ‘시즌2’에 이어 ‘전주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교육도 진행된다. 탄소중립 교육은 시민들이 교육 이후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9일부터 프로그램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인숙 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다채로운 평생학습 강좌를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평생학습 안에서 9월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